

남아공 월드컵 10일 앞으로...

“평가전 결과에 일희일비할 때는 아니다. 지금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차에 확실히 적응하고 체력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대비해

오스트리아에서 고지 적응훈련에 나선 축구대표팀이 지난달 30일 치러진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82위 벨라루스와 평가전에서 0-1로 패했다.



투혼 불사르는 태극전사들

허정무호, 시차적응·체력회복 급하다

■ 벨라루스 평가전 분석

대표팀은 이날 박주영(모나코)-이근호(이와타) 투톱에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청용(볼턴)을 좌우에 배치하고 기성용(셀틱)-신형민(포항) 조합을 중앙에 배치한 4-4-2 전술로 벨라루스를 상대했다. 그러나 경기 직전 소나기가 쏟아지고 잔디까지 길게 자라있어 선수들은 미끄러운 그라운드 컨디션에서 체력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유기적인 공격이 미흡했고 수비 조직력도 팬들의 기대 수준을 맞추지 못했다. 게다가 중앙 수비수 콕태휘(교토)가 부상을 당쳐 월드컵 본선 진출이 어렵게 되는 등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평가전이 왜버렸다. 하지만 축구 전문가들은 벨라루스 평가

공격 조합·수비 조직력 아직도 허점 박지성 움직임·이승렬 돌파력 ‘희망’

전의 패배에 대해 “유럽 시차에 적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고 고지 적응을 위한 체력훈련 위주의 일정이 이어진 만큼 단순히 경기 결과만 따지기보다 월드컵 본선에 적응하기 위한 단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길 KBS N 해설위원은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차적응과 컨디션 조절이다”며 “평가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벨라루스 평가전은 결과로만 보면 좋지 않았지만 두 차례 국내 평가전을 끝내고 지난 25일부터 오스트리아에서 훈련해왔던 만큼 선수

들의 체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대표팀에는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지만 이들 역시 국내에서 평가전을 치르고 다시 유럽 시차에 적응하는 상황이라서 국내와 선수들과 비교해 큰 장점을 가질 수 없었다”며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아르헨티나와 프랑스도 아시아의 시차 적응에 고생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박지성의 활발한 좌우 움직임과 공간 활용은 물론 강한 프리킥을 시험해보고 후반에 이승렬(서울)을 투입하면서 빠

른 돌파와 마무리 솜씨까지 이어진 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며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수비수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인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박문성 SBS 해설위원 역시 “벨라루스를 그리스의 가상 상대로 꺾어준 건 이번 평가전은 현지 시차와 고지대 환경에 적응하는 자리였다”며 “선수들의 컨디션이 떨어진 것은 당연하다. 선수들의 조합과 개인의 능력을 점검하는 데 신경을 쓰는 평가전이었던”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선에서 만날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는 특성이 모두 다르다. 하나의 조합보다 상대에 맞춘 몇 가지 조합이 필요하다”며 “전반에 박주영-이근호 공격조합을 써보고 후반에 안정환과 이승렬·염기훈을 투입하는 등 충분한 실험을 해본 평가전이었던”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 허정무 감독 일문일답

“경기 내용이 썩 좋지 않았다. 부상 선수 보호 차원도 있었지만 짜임새가 떨어졌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좋은 공부가 됐다. 특히 유럽선수가 움직이는 것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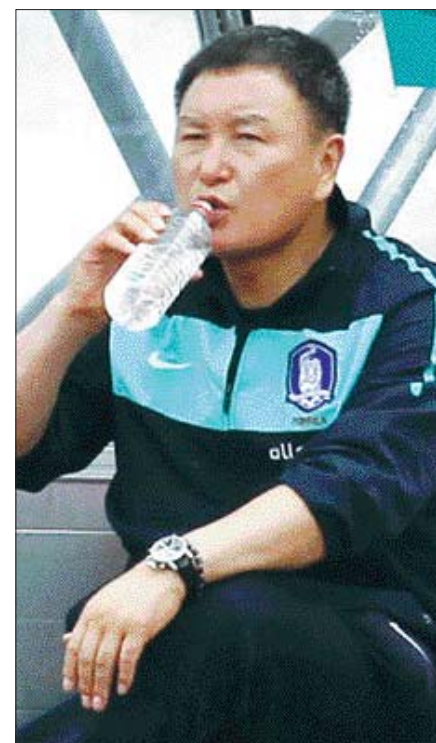
허정무 감독은 지난달 30일(한국시각) 오스트리아의 쿠프슈타인의 쿠프슈타인 스타디움에서 열린 벨라루스와 친선경기에서 0-1 패배를 당하고 나서 그리스를 가정한 평가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경기 내용에는 불만을 드러냈다.

다음은 허정무 감독과 일문일답. -최종 엔트리 결정에 변수가 생겼는데. ▲이번 게 가장 곤란한 점이다. (예비명단까지 포함한) 인원수는 갖고 있는데 경기를 앞두고 부상당하는 게 우리로서는 당혹스러운 점이다.

“곳곳에 빈틈...모든게 안풀렸다”

-경기가 안 풀렸는데. ▲매끄러운 경기를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멤버 구성상으로도 이 선수는 전반 끝나고 바꿀 선수, 이 선수는 끝까지 뛸 선수로 미리 정하고 내보냈다. 이 경기에서 애초 무한정 선수를 교체하려고 했다. 벨라루스와 양국이 합의를 했는데 오스트리아축구협회 가 반대하는 바람에 멤버 교체를 분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스 가상 경기였는데. ▲경기 전에 선수들에게 유럽의 다리가 길고 큰 선수들과 플레이하는 방법을 느끼라고 했다. 팀이 대응하기에는 멤버가 뒤죽박죽되는 바람에 잘 안됐다. 그러나 큰 선수 특히 테를 범위가 넓은 선수들의 플레이를

체험하는 기회였다. -스페인전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부상 선수는 언제든 생각할 수 있다. 부상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직접 챙겨야 한다. 하지만 운동장에 나가 부상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최종 엔트리 결정에 참고가 됐다. ▲참고를 하려고 했다. 최종적으로 미팅해야 한다. 최종 엔트리에 너무 민감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보고 있고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하겠다. -스페인전은 베스트 멤버를 기용하나. ▲그레도(월드컵에) 뛸 선수를 내보낼 생각이다. 베스트부터 교체 선수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좁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연합뉴스



■ 오늘 최종엔트리 발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참가할 최종 엔트리 23명의 운명을 결정할 시간이 확정됐다. 축구대표팀은 1일 오후 4시(한국시각) 종전 예비 엔트리 26명에서 세 명을 탈락시킨 23명의 명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남아공 월드컵에 참가할 태극전사들이 최종 결정되는 것이다. 대표팀의 주축 중앙수비수였던 콕태휘(교토)가 왼쪽 무릎을 다쳐 나머지면서 갈

공격수 한 명·미드필더 두 명 탈락

은 포지션의 예비 엔트리에 들었던 강민수(수원)가 최종 엔트리에 합류했다. 관심은 최종 엔트리에서 어떻게 탈락하게 되는 3명이다. 허정무 감독이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청용(볼턴)을 비롯한 해외와 12명은 전원 발탁이 유력하다. 다만 김보경(오이타)은 박지성이 버티

는 왼쪽 측면 미드필더 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김보경과 같은 ‘왼발 달인’ 염기훈이 공격수 범주에 포함된다면 김보경은 박지성의 백업으로 남아공으로 가는 티켓을 거머쥌 수 있다. 남은 경쟁은 공격수와 미드필더 부문이다. 이동국(전북)이 허벅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탈락자에 포함될지 관

심거리다. 이동국은 짧은 공격수 이승렬(FC서울), 컨디션을 좀처럼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근호(이와타)와 경쟁한다. 미드필더 부문에선 신형민·김재성(이상 포항)·김보경·구자철(제주) 등 네 명 중 두 명이 탈락의 쓴맛을 본다. 최종 명단에 들지 못하는 세 명이 남아공에 함께 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허정무 감독은 탈락자가 나오더라도 26명 모두를 남아공에 데려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최종 엔트리에 발탁되지 못한 선수를 월드컵까지 동행토록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부상 콕태휘 대신 강민수 재승선

강민수(24·수원)가 다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출전 기회를 잡았다. 대한축구협회는 “허정무 대표팀 감독이 왼쪽 무릎 내측 인대를 다쳐 4주 진단을 받은 중앙수비수 콕태휘(교토)의 대체 요원으로 강민수를 뽑기로 했다”고 31일 오후(이하 한국시각) 밝혔다. 콕태휘는 전날 오스트리아 쿠프슈타인에서 열린 벨라루스와 친선경기에서 왼쪽 무릎 내측 인대를 다쳐 4주 진단을 받았고 남아공 월드컵 참가가 어려워져 대표팀은 예비 엔트리(30명)에서 중앙 수비수를 보강

하기로 했다. 강민수는 빠른 6월1일 대표팀의 오스트리아 전지훈련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며, 콕태휘는 조만간 귀국길에 오른다. 허정무 감독은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플레이어는 포지션별로 두 명씩을 월드컵 본선에 데려갈 생각이라 강민수는 조용형(제주)·이정수(가시마)·김형일(포항)과 함께 중앙 수비수로 남아공 월드컵 본선 최종 엔트리에 들게 됐다. 월드컵 예비 엔트리에서 중앙수비수 자원은 강민수와 황재환 둘이었는데 허 감독은

강민수를 택했다. 강민수는 대표팀에서 활약을 비교하면 황재환과 경쟁에서 한발 앞서 있어 추가 발탁이 어느 정도 예견됐다. 2008 베이징 올림픽 대표를 거친 강민수는 2007년 6월2일 네덜란드와 친선경기를 통해 국가대표로 데뷔전을 치르고서 A매치 31경기(26경기 풀타임 출전)를 뛰었다. 허정무 감독이 부임한 2007년 말 이후 출전한 A매치는 23경기나 된다. 이 중 18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다. 남아공 월드컵 예선 경기도 9차례나 출전했는데 모두 풀타임 활약했다. 지난해까지 제주에서 뛰다 올해 수원으로 옮긴 강민수는 전체적으로 팀의 부진 속에서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다 지난 29일 강원과 리그 컵대회 경기에서 득점도 올리는 등 최근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오스트리아 쿠프슈타인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벨라루스와 평가전에서 태극전사들이 몸을 사리지 않는 투혼을 불사르고 있다. 위부터 김동진·차두리·안정환·박지성·신형민·염기훈·박주영·콕태휘. /연합뉴스